

유령선

페어필드는 런던과 바다를 잇는 포츠무스거리의 중간지점에 가까이 있는 마을이라네. 마을을 우연히 발견한 이방인들은 여기가 아름답고 고전적인 장소라고 하지만,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닥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는다네. 하지만 다른 데 살 바에는 여기서 살아갈거야. 우리의 마음은 여관과 교회, 그리고 잔디밭에 길들여진 것 같아. 페어필드 밖에서는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거든.

물론 거대한 집들과 시끄러운 거리를 자랑하는 코크니(런던 토박이)들은 우리를 시골사람이라고 부르겠지만, 누가 뭐라해도 페어필드는 런던보다 살기 좋은 곳이지. 의사도 런던에 갈 땐 자기 마음이 건물들의 압박에 마음이 짓눌린다고 한다네. 그는 코크니 출신인데도 말이지. 어렸을 때 혼자 거기서 살아야 했다고 한다만, 지금은 그게 어떤 곳인지 잘 알겠지. 웃어도 좋네. 아마 웃는 자네들 중 일부는 런던 사람들이겠지.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의사의 증언이 백 마디 논쟁보다 낫다네.

지루하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네들이 런던에서 일어날 일들을 풀어내는 걸 다 들어봤는데 페어필드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의 일에 신경 안 쓰는 습성 때문이지. 만약 자네들 런던 사람이 토요일 밤에 잔디밭에 앉아있다가 전쟁에서 죽은 사내 유령들이 교회 앞에 누워있는 여자들과 뭐 한번 해보려하면, 자네들은 궁금해서 방해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지. 그리고 유령들은 좀 더 조용한 곳으로 도망치겠지. 우리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고 그냥 냅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페어필드는 영국에서 제일 유령이 많은 장소가 되었지. 뭐, 나는 대낮에 우물가에 앉아있는 머리가 없는 남자와, 마치 아빠와 장난치듯 그의 빨로 장난치는 아이들도 본 적이 있지. 내 말을 믿게나, 유령들도 사람들과 같아. 자신이 살고 싶은 장소가 어딘지 잘 안다네.

내가 앞으로 말해줄 일은, 매 계절마다 유령 사냥개 세 펫가 사냥을 하고, 대장장이의 증조부는 죽은 신사들의 말에 편자를 박느라 정신없는 이 동네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일이라네. 이건 오지랖이 넓은 런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여기 대장장이는 그런 소동 속에서도 위층에서 양처럼 조용히 잔다네. 한번 두통이 있을 때 조용하라고 소리친 적이 있었는데, 그다음 날 아침 사과의 의미로 모루 위에 금화 한닢이 놓여 있더군. 대장장이는 그걸 자기 시곗줄에 달고 다니지.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하지. 페어필드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멈출 수가 없어.

원문: THE GHOST-SHIP by Richard Middleton (일부 발췌)

출처: Project Gutenberg (<https://www.gutenberg.org/ebooks/11045>)

이 작품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퍼블릭 도메인 작품으로, 원문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